

중소기업 · 소상공인 추경 정책금융 4.2조원 공급

대내 · 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 ·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충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5조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2조원을 더해 2025년도에 총 30.7조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추경 정책금융 주요지원을 살펴보면,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 · 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7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는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0.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1조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0.5조원을 공급한다.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예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

자금 상황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 · 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예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 · 경남 산발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천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작 · 간접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2

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작 · 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용,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9%,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0.14조원, △신용취약자금 0.24조원, △혁신성장촉진자금 0.12조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0.5조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

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 · 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장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오상근 기자

과수화상병 을 첫 발생... 긴급 방제 ·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진청,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0.6헥타르 발생 확인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6헥타르(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현재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5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 20ha)을 예방 관촬(예찰)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다. 이와 관련해 5월 13일 14시 서효원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 충주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5월 12일 오전 현장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같은 날 18

시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과수원은 지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 · 배 재배 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에도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한전 남원지사, 유관기관 합동 재난재해 대응 MOU체결

한국전력 남원지사는 13일 남원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 · 순창지사와 재난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한전, 김승현 남원소장서

장, 김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 · 순창지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화재 등 재난 ·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인력,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남원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해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중남 남원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년 재난재해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러스 감염, 수확량 반으로 '뚝'

농진청, 감염되면 당도 21% · 향기 42% · 수확량 69% 줄어

농촌진흥청은 포도 '샤인머스켓'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 피해 결과를 발표하고 무병 묘목 구매를 강조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가 늘어 바이러스병에 대한 농가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병 감염 피해를 정밀 분석하고자 실증 재배지를 조성하고, 감염 묘목 27그루를 심은 뒤, 3년에 걸쳐 나무 생장과 열매 품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동시 감염(3~5종)된 묘목은 송이 무게가 30.5%, 평균 수확량이 69.1% 감소했다. 맛과 향도 떨어져 당도는 21.0% 감소하고, 산도(신맛)는 18.5% 증가했으며, 특유의 향기(머스켓 향) 성분인 '리날로올' 함량은 42.6% 줄었다. 아울러 익는 시기가 늦어지고, 잎에 심한 모자이크 증상이 수확기까지 지속됐으며, 겹질 색이 변하는 등 농현상도 확인됐다. 농촌현상은 과일 겹질에 갈색이나 청동색처럼 변색하는 현상이다.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이 많이 보고된 작물이다. 현재까지 102종의 바이러스가 보고됐고, 국내에서도 14종의 바이러



스와 4종의 바이로이드 감염이 보고됐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4~7종 동시 감염 사례가 많았다. 이번 연구는 무병 묘목과 감염 묘목을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재배하며 나무 생장과 열매 품질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윤수현 과장은 "샤인머스켓은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품종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병묘로 건강한 과수원을 만들고, 품질 좋은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면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샤인머스켓' 무병화 과정을 마쳤다. 시중에는 지난해부터 무병 묘목이 공급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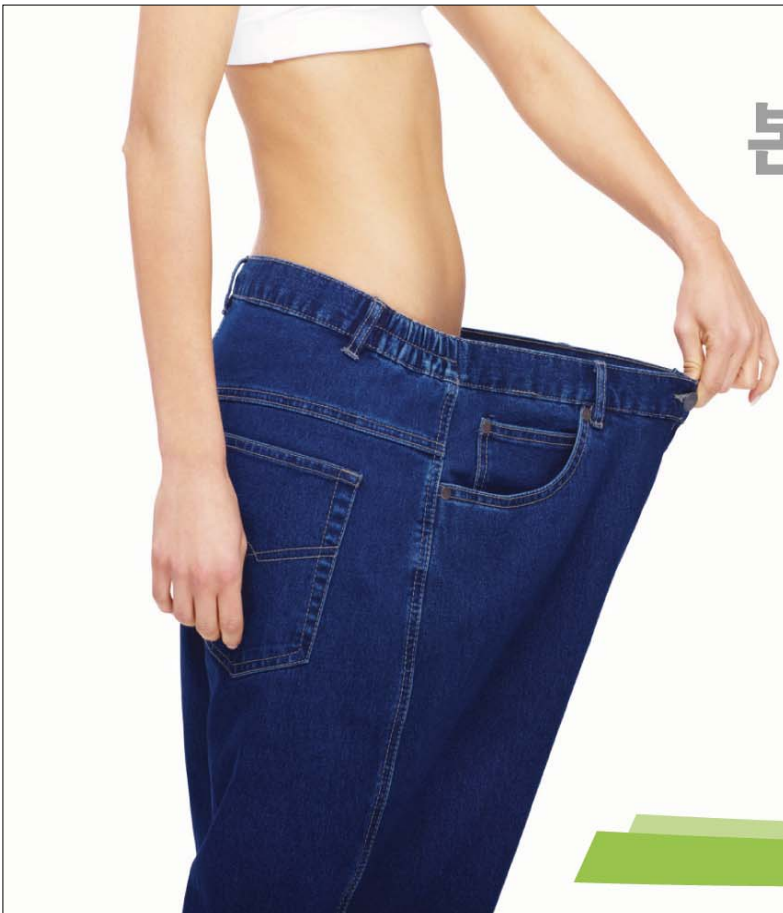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아침밥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농협 전주시지부, MZ 세대 대상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농협전주시지부는 13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하양진 지부장을 비롯한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농협전주시지부 직원, 대학생 서포터즈 등 20여명은 전북대학교 진수당 앞에서 취업박람회를 찾은 대학생과 교직원, 기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밥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농협은행 전주지부와 대학생 서포터즈는 캠퍼스존 대학생 대상 아침밥 지원금을 증정하는 제휴 마케팅을 실시하며 MZ 세대의 아침밥 먹기 동점을 유도했다. 박람회장 인근에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기업체 담당자에



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금융을 펼쳤다. 하양진 지부장은 "하루의 시작, 아침밥은 단순한 쌀 소비를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과 균형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라면서, "농민들의 정성이 깃든 우리 쌀 소비와 활기차고 든든한 하루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